# 사사기에 숨겨진 대반전

## (사사기 21:1~25)

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 백성이 벧엘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4.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5.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6.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사기에 숨겨진 대반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사기에 숨겨진 대반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기이하고도 오묘한 역설적인 대반전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는 이 반전을 위해 반대되는 양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지막 반전은 사사기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이 열쇠를 쥐어야 진정으로 사사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이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측근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청와대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측근이 있을 것인데 그 측근도 측근 나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측근 중에서 최측근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맥락에서 보자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최측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최측근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을 보이지 못한 너무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왕들의 기준점이 다윗 왕입니

다. 사사기는 21장을 지나가는 동안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50회 정도가 나오는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더라”는 말이 4번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암시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이 50번 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더라.’는 말이 반복되는 구성 안에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의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사사기의 내용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최측근이십니다. 벧전2:9절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의 측근’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획득의 경쟁에서 1등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겨서 그것이 없어도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왕이고 하나님의 최측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측근은 한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영이신 하나님께는 선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한 사람 같은 최측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비류들의 악행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 간에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 응징을 위한 필연적인 전쟁이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 육백 명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베냐민의 불의에 대한 응징은 마땅했지만, 전쟁을 끝내고 보니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가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응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없어지게 되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 살리기에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패하고 달아나서 림몬 바위에 숨은 육백 명에게 아내를 구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치기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자신들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도 베냐민 지파로서의 어떠한 긍지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또 자신들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셔 들이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던 족속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맹세가 있었습니다. 요단

강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 속했던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멸절시키며 여자 사백 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년 실로의 포도밭에서 여호와의 축제가 벌어질 때에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하게 하여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가 보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름은 사사기이지만 내용이 사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다른 신 섬기기였습니다.
마6: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 섬기기’는 재물이 다른 신의 대표 격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데 ‘섬긴다.’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 섬기기를 미가와 단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미가는 돈을 섬겼고 단 지파는 땅과 이 땅에서의 번영을 섬겼습니다. 그런 후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비류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신 섬기기는 지금 현재 기브아의 비류들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질책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었으나 돈을 좋아한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상태를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장에서 베냐민의 행위에 대해서 썩은 시체가 들어있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특이한 점은 마지막 절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와 똑같은 구절이 17장, 18장, 19장, 21장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로는 왕의 이야기가 50회나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던 이방 족속 전체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접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사사의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특이한 점은 지독한 악행으로 인해 멸절되었다가 기사회생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의 발단이 되었

던 기브아에서 그 유명한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이 나긴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큰 선민의 나라의 초대 왕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측근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선민 중에서 최측근으로 초대 왕을 선택하시는데 도대체 왜 베냐민의 악행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결정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데 선민의 초대 왕을 결정하실 때에 어째서 그 베냐민 지파의 악한 역사가 전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냔 말입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이고 또 하필이면 많은 성읍 가운데서 다름 아닌 동족상잔의 비극의 원인이 된 비류들이 있었던 기브아 출신이 초대 왕이 된 것일까요?

사사기 전체는 이 사실을 향해 반전을 꿈꾸며 숨기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사사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해야 최측근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기브아 비류들처럼 멸절당해야 최측근이 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 보다 강하게 역사적 경험으로 가지게 된 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기브아 사람들의 뼛속까지 새겨진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민이 멸절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신 섬기기의 결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멸절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기브아 출신이 선민의 나라의 초대 왕이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최측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다가는 멸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이, 가장 크게, 가장 오래, 가장 끈질기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로마를 뒤집어엎을 수 있는 선교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삶의 멸절을 가장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최측근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처럼 대하시고 가장 가까이 오기를 바라시는 자는 베냐민의 멸절과 기브아 비류들의 멸망을 마음으로 알아서 그것을 자기의 죽음으로 알고 자기의 멸망으로 여기며 잊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도 결국은 이러한 멸절로 끝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베냐민과 기브아의 비류들이 앞서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멸절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멸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해야 될 이 멸절을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자꾸 이 세상 것을 향하여 이것만 있으면 기쁠 텐데,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텐데, 이것만 해결 됐으면 좋겠다면서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베냐민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먼저 이

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여겨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나의 멸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의 진공 상태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출신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진원지인 기브아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외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영적인 음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이 베냐민의 멸절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멸절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멸절로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최측근으로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등장은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선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는 다른 신 섬기는 성향을 가진 나는 기브아의 비류들이 멸절당한 것 같이 멸절당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이고, 또한 그러한 나의 멸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돈이 안 벌리고 건강이 문제이고 자식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급한 문제들을 다 젖혀 놓으시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내 마음과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나의 멸절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은 평강으로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 베냐민의 멸절을 나의 멸절로 주님의 죽음에서 발견해 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베냐민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앞서서 악함으로 멸절을 당했고, 그 멸절을 경험했으므로 하나님의 최측근인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